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유아용 교재·교구 활용에 대한 품질인식과 인증평가제도 적용에 대한 연구

강영식¹, 박정환^{2*}

¹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육대학원 유아교육, ²제주대학교 교육학과

A Study on the Perceived Quality and Application of Authentication Evaluation System of Teaching Materials and Implements for Children and the trend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Field

Young-Sik Kang¹ and Jung-Hwan Park^{2*}

¹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Chung-Nam University

²Dept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유아용 교재·교구 활용에 대한 품질인식과 인증평가 제도적용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는데 목적을 갖고, 2013년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충남, 대전지역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3년차 이상된 영유아반 지도교사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교재·교구 활용실태는 유아와의 상호작용에서 교재·교구의 질 중요성은 전체 96.1%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대다수 교사가 교육, 보육과정을 고려한 교재·교구사용시 수량과 품질에 대한 높은 인식을 보였다. 또한 현장에서 유아교사와 교구간의 사용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는 발달의 적합성(47.3%)이 가장 높고, 유아에 대한 사용의 편리성은 평균 3.54점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놀이와 교구의 사용시 유아들의 교구활용에 대해 평균 3.89점으로 유익하다고 나타났으며, 현재 유아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유아 교구에 대해 평균 3.29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재·교구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평균 3.99점으로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이같은 결과는 유아의 어린이집에서의 교재·교구활용에 따른 교재·교구의 질이 매우 중요시 되고 있음을 입증시켜 주었다. 이는 교재·교구의 중요성과 유용성을 고려할 때 품질기준과 시설평가와 함께 교재·교구도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하여 품질이 보증된 제품의 공급으로 유아들의 안전과 사용에 따른 편의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의 도입이 요구됨을 시사해 준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application of perceived quality and authentication evaluation system of teaching materials and implements for children 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field. To achieve this, a survey was carried out from April 20 to April 30, 2013 on 150 guidance teachers who teach children classes for more than 3 years at kindergartens in Daejeon area, Chungna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for the use of teaching materials and implements, 96.1% of teachers thought the quality of teaching materials and implements in their interaction with children was important. Most of them had a high perception of the quantity and quality when using teaching materials and implements with early childhood curriculum. For the most inconvenience when using teaching implements, developmental appropriateness was the highest by 47.3%. And the convenience of the application to children was 3.54 points on average. Above this, the application of teaching implements to children when using play and teaching implements was useful by 3.89 points on average. The current teaching materials and implements for children 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field was normal by 3.29 points on average. Second, teachers' perception of teaching materials and implements was relatively positive by 3.99 points on average, proving that the quality of teaching materials and implements based on the application of teaching materials and implements to early children in kindergartens was very important. Consequently, considering the importance and usefulness of teaching materials and implement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institutional policies that teaching materials and implements with quality standard and institution evaluation can introduce the evaluation authentication system to guarantee the convenience of children's safety and use by the supply of quality-guaranteed products.

Key Words : Early Childhood Education, Teaching Materials for Children, Teaching Implements for Children, Perceived Quality, Authentication Evaluation System

*Corresponding Author : Jung-Hwan Park(Jeju National Univ.)

Tel: +82-10-9843-2620 email: edu114@jejunu.ac.kr

Received September 4, 2013

Revised (1st October 2, 2013, 2nd November 6, 2013)

Accepted November 7, 2013

1. 서론

영유아들은 놀이를 통해 성장하고 발달한다. 놀이는 영아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활동이며, 생활 그 자체이다. 실내·외 공간구성과 교재·교구는 영유아들의 놀이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다양한 교재·교구는 영유아의 놀이활동을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유발시키는 물리적 환경이다.

교육과 보육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적환경의 하나인 교사라고 볼 수 있겠으나 영유아의 발달특성상 물리적 환경인 교재·교구의 영향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1].

유치원의 경우 시설·설비 기준과 교재·교구 기준이 각 시·도 교육청마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교재·교구의 비치여부는 시설인가에 무엇보다 중요한 항목이 되고 있으며, 유치원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기준을 보면 어린이집의 경우 시설인가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교재·교구에 대한 기준이 없어 교재·교구의 비치여부가 인가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2].

2012년 현재 설치·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 중 정원 20인 이하의 소규모 보육시설이 전체에서 40%를 차지하고 있다[2]. 이들 영세한 소규모 보육시설로 인해 표준보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환경구성이 어렵고 더욱이 교재·교구에 대한 점검과 인증평가를 위한 관련 연구 또한 전무한 실정이다[3-5]. 이같은 한계로 현재 교재·교구의 비치기준이 없는 어린이집의 경우,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교재·교구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많은 시설들 또한 교재·교구를 제대로 비치하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으로 인기 있는 교재·교구를 비치할 수 없는 취약점으로 인하여 보육의 질적 저하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6].

현재 평가인증지침서 ‘영역 2’의 보육과정에 교재·교구의 비치에 대한 항목이 간략적으로 제시되어 있어[1] 교재·교구 마련에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시설과 통과한 시설은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이 되고 있다[3]. 그러나 평가인증지침서에 제시되어 있는 교재·교구 항목이 매우 포괄적이고, 영역별로 중복되는 항목이 많아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항목이 아닌 단지 예시로 나와 있는 정도로 교재·교구의 정확한 비치여부를 인식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7]. 특히, 영아반을 운영하려는 신규시설과 평가인증 미준비시설의 경우 표준보육과정에 맞는 영아반 교재·교구를 비치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어린이집에

적합한 영아반 교재·교구 비치기준과 평가인증제가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임과 동시 동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목적을 갖는다.

2. 교재·교구인증제도 고찰

2.1 교재·교구의 발전동향

우리나라에서는 1951년 6월 한국시청각교육회가 발족되어 시청각교육에 대한 조사·연구·제공활동이 시작되었다. 그 후 1972년부터 한국교육개발원을 중심으로 텔레비전, 라디오 등의 교수매체를 활용한 교수방법의 연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유아를 위한 교수매체의 연구·제작·보급사업은 한국어린이교육협회-유아교육협회 등이 주최한 강습회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시작되었다[8].

1981년 2월에는 문교부가 행동과학연구소에 위탁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새마을협동유아원, 농번기 탁아소 등에 유아를 위한 그림책, 교사가 유아에게 제시할 그림 자료집 등을 제작하고 교수매체들에 대한 교사지도 자료집을 만들어 보급함으로써 정부차원에서 유아를 위한 교수매체 제작 및 보급이 시작되었다. 또한 1981년 3월부터 KEDI와 각 텔레비전 방송국들이 어린이 프로그램을 비교적 다양하게 제작·방영해 오고 있다. 1981년 12월 31일 「유아교육진흥법」의 제정·공포로 국가가 유아교육을 위한 교재 및 교구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관한 시책 마련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유아교육진흥종합계획의 실천연도인 1982년부터 1986년까지 문교부가 교재교구 개발보급을 담당하였으며, 「유아교육진흥법(법률 제3635호, 1982.12.31.)」의 주요 내용 중에 국가는 유아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유아교육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재·교구를 연구·개발한다는 내용이 있다.

1983년 6월 9일 「유아교육진흥법」 시행령에는 교재·교구에 대한 장학지도를 명시함에 따라 교육부는 교사용지도 자료집을 개발하여 전국에 보급하였다. 1982년부터 교육부 주관 하에 교재·교구 전시회를 열었고, 선정된 교재 및 교구의 제작·활용방법을 수록한 책자도 발간하여 유아교육기관에 제공한 것은 현장의 교육자들에게 교재·교구의 제작과 활용에 새로운 인식과 관심을 갖게 하였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교육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매년 교사를 위한 유아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한국문화정체성, 전통문화예술, 유아 과학창의교육, 유아 에너지 교육, 유아 세계시민교육,

유아 사회교육 등 다양하다.

2008년에는 개원한 서울특별시 유아교육진흥원은 국가시책 및 시대적 흐름에 따른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교육현장에 지원하고 있다. 특히 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재·교구 및 교육행사용 자료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어 교사의 업무를 덜어주고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업체에서도 다양한 교재·교구를 상품화하여 개발하고 있어 유아교육기관들이 이러한 상품화된 교재·교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유아의 다양한 개성, 흥미와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유아를 지식을 구성하는 능동적인 학습자로 보는 관점에서 지역과 개인에 따라 다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사도 교재·교구 개발과 활용의 기본원리에 대한 기초지식을 갖추고 상황에 따라 제작과 활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평가인증과 비치기준이 새롭게 마련되어야 한다.

2.2 국내 교재·교구인증평가제도 적용현황

우리나라는 2002년 보육시설 활성화 방안을 수립·발표하고, 급증하는 보육시설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보육시설내 교재·교구의 평가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웠다. 2004년에 보육시설 교재·교구 평가인증제도의 실시모형을 개발하고, 보육시설내 교재·교구 평가인증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영유아보육법 제 30조)를 마련하였다. 2005년부터 보육시설내 교재·교구 평가인증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전국 보육시설 33,499개소(2008년 말 기준) 중에서 2005년~2009년 2기(3월)까지 15,390개 시설(45.9%)내 교재·교구 사용 인증을 받았고 [9], 2009년까지 제1차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마무리하고 제2차 평가인증제도를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7].

교구·교재의 평가인증 제도의 대상은 기존의 '21인 이상', '21인 미만'을 2008년 평가인증 개선안 적용에 따른 기준에 의해 '40인 이상 보육시설' 평가인증과 '39인 이하' 평가인증,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대상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하위항목은 기술평적 척도에 의해 항목별 우수한 질적 수준(3점),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 부적절한 수준(1점) 등 3단계 평가 기준을 설정하여 평가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보육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미국, 영국, 일본, 호주 그 외의 다른 여러 나라도 기관을 시설뿐만 아니라 교재·교구도 평가하는 평가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재·교구의 평가인증 체제와 가장 근접한 미국과 호주의 경우를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3 국외 교재·교구인증평가제도 운영현황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영유아 보육에 대한 질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절한 관리 체계를 만들어서 질 향상을 꾀하고 있다. 미국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재·교구의 질적 수준에 대한 우려 및 국가적으로 합의된 인증기준의 부재와 필요성에 의해 민간단체인 전미국유아교육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Education of Young Children: NAEYC)주관으로 1985년 122개 품질기준을 개발해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재·교구에 대한 평가인증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7].

이는 영유아가 매일 사용하는 교재·교구의 질을 높여 긍정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촉진하도록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재·교구의 질적 수준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NAEYC가 함께 수행하고 있고, 2009년 5월 7500여개의 교재·교구가 인증을 받았다[10]. 평가인증 기준과 지표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1991년, 1998년, 2006년 평가인증 관련 사항을 개정하여 417개의 지표로 교재·교구의 인증평가제도가 활성화 되었다[11]. 미국에서 교재·교구의 평가인증제도 도입 실시로 보육 및 교육기관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12], 현재 미국 전역에서 NAEYC의 평가인증제를 통해 각 주가 제시하는 요구 기준보다 월등한 제품이 생겨나고 있다[7].

미국 교재·교구의 평가인증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는 세계 유아교육계에 영향을 주어 독일, 일본, 벨기에, 영국,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파나마, 호주 등의 국가에서 교재·교구 평가인증제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적용하고 있다. 특히, 호주는 1990년 영유아에 대한 지식 향상, 보육시설에서 지내는 영유아의 수 증가, 영유아가 보육시설에서 보내는 시간의 증가 등으로 인해 보육시설내 교재·교구의 질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1993년 국립보육인증위원회(National Childcare Accreditation Council: NCAC)를 설립한 이래, 2009년 10월 현재 QIAS 5,800개 시설, FDCQA 328개 시설, OSHCQA 3,485개 시설에서 교재·교구의 승인을 받았다[13].

미국은 민간 유아교육단체인 NAEYC(전국유아교육협의회), NAFCC(가정보육단체), NSACA(방과후프로그램 관련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교재·교구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NAEYC는 대표적인 유아교육단체로서 1926년에 설립되어 현재는 미국 전역에 400여개의 지부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활동을 주관하고 있으며[14], 평가인증지표 모형개발과 함께 1986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인 수정작업을 거치며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주로 민간차원에서 시행된

교재·교구 평가인증의 성공은 교재·교구 평가인증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그 결과 보육시설내 교재·교구의 평가인증제 참여를 원할 경우 그를 위해 정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있다. 미국의 교재·교구 평가인증제의 효과에 관한 연구결과는 미국에서의 교재·교구 평가인증제가 유아교육기관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였음을 입증하였다[12,15].

미국에서는 교재·교구 평가인증제도 도입 이후 통과된 시설의 사후관리체제로 인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인증 후 2년이 되면 다시 인증 받을 준비를 해야 하며, 적어도 인증 만료 90일전에는 현장방문 검증을 위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또한 2회 연속 즉, 6년간 인증을 받고 시설의 책임자가 교체되지 않으며, 교사의 이직률이 낮고 평가기준에 대한 충족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보호자로부터 심각한 불만사항이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 없이 교재·교구의 평가인증 기간을 연장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일지라도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호자의 불만이 접수된 경우에는 재평가할 기회를 가져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사용 교재·교구 평가인증이 취소된다[14].

2.4 국내외 교재·교구인증평가제도 특징비교

이상과 같이 미국과 호주의 교재·교구 평가인증제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재·교구 평가인증제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 볼 수 있는데 그 유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인증제의 목적은 보육시설의 질적 서비스 향상이다. 둘째, 평가인증제에 보육시설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이다. 셋째,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위해 시설의 자체평가자, 검증자(현장관찰자), 인증위원회를 평가단 구성에 포함시킨다. 넷째, 평가인증제에 보육시설 자체점검(평가)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보육시설의 자체평가는 현장 보육시설의 교사들로 하여금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자국제 역할을 한다.

반면, 그 차이점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평가인증제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평가인증제와 정부의 지원에 대한 사항이다. 미국의 경우는 평가인증 결과와 국가지원은 연계되어 있지 않으나 호주의 경우는 정부지원과 연계되어 있어 관련 시설의 99%가 평가인증에 참여하고 있는 점이다[16].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평가인증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연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평가인증 운영과정 중 자체점검 기간에 대한 사항이다. 미국의 경우는 평가인증의 총 기간이 9-12개월 소요되나, 2005년 이후부터는 무제한으로 실시하고 있

며, 호주의 경우는 자체점검 2년 반을 포함한 총 3년의 기간을 정해 놓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평가인증의 총 기간이 9-10개월 정도 걸리며, 이 중 자체점검 기간은 4-5개월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육시설이 충분한 기간을 통해 보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자체점검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리라 본다.

셋째, 교재·교구 평가인증 조력자의 역할에 관한 사항이다. 미국의 경우 조력자는 현장방문을 통해 자체평가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역할을 주로하며, 호주는 시설방문을 통해 교재·교구의 질을 확인하고 확인 조사서와 확인 보고서를 제출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조력자는 자체점검 기간 중 교재·교구가 평가인증에 통과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평가인증 참여에 대한 자체점검보고서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조력자가 시설을 방문하여 자체점검보고서의 타당한 확인 작업과 이에 따른 보고서를 평가인증심의 위원회에 제출하여 평가인증 결과의 자체점검보고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과정이 필요하다.

넷째, 교재·교구 평가인증 내용에 대한 사항이다. 미국의 경우 평가내용은 최근에 와서 아동의 학습관계를 증진시키는 교수방법과 아동발달과 관련된 품질에 우선 을 두고 관리하고 있다. 또한 호주는 우리나라의 평가내용과 다소 차이를 나타낸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보육시설이 주체가 아닌 유아를 중심으로 하는 교재·교구 및 제도와의 관계협력과 아동발달 평가 그리고 교수방법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재·교구 평가방법에 대한 사항이다. 미국과 호주의 평가방법은 관찰, 면담, 관련 제품 수집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와 비슷한 평가방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나 면담은 평가방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평가인증제의 성공은 보육시설의 자체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교재·교구 평가과정에 교사와 학부모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외국의 평가인증제는 10여년 이상의 오랜 기간에 걸쳐 이어져오고 있으며, 그 기간 동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개선과정을 거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평가인증제는 이제 첫발을 내딛는 시작단계이지만 보육시설 스스로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정책연계 및 실증 연구를 통하여 기반을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3. 연구 방법

3.1 연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충남, 대전지역 어린이집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들 중 3년차 이상된 영유아반 지도교사 1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본 연구자가 2013년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상가지역 소재 어린이집에 직접 방문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지 제공과 함께 간단한 설문 목적 및 설문방법을 설명 후 현장에서 배부 후 바로 직접 회수하였다. 수거된 설문지 중 불성실 응답자와 결측치 21부를 제외한 129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교사의 담당학급이나 경력에 따라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3.2 측정변수와 설문지 구성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총 23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즉, 인구사회적 특성은 담당학급과 경력으로 구성하였으며, 교재·교구활용 실태는 보육교사 평가인증제에 대한 시설장과 교사의 인식척도를 사용한 이정숙[7], 이옥[17]의 척도를 응용하여 6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유아교사의 교재·교구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김은영[1]과 김동례[18]의 척도를 응용하여 15문항으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0.913으로 나타났다.

문항 척도는 통계분석을 위한 인구사회적 특성과 교재·교구 활용실태 문항은 명목척도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교재·교구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묻는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는데,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각 문항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분석은 SPSS WIN 17.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재·교구 활용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 및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둘째, 교재·교구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 대해 알아보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 방법으로는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다음 Table 1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담당학급은 만2세교사 33명(25.6%), 만3세 40명(31.0%), 만4세교사 32명(24.8%), 만5세교사 24명(18.6%)으로 나타났고, 경력은 3년 미만 31명(24.0%), 3-5년 51명(39.5%), 6-10년 28명(21.7%), 11년 이상 19명(14.7%)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ose surveyed

Classification		N	%
Undertaking class	Two-year-old toddler teachers	33	25.6
	Three-year-old toddler Teachers	40	31.0
	Four-year-old toddler teachers	32	24.8
	Five-year-old toddler teachers	24	18.6
Career	Under 3 years	31	24.0
	3 to 5 years	51	39.5
	6 to 10 years	28	21.7
	Over 11 years	19	14.7
Total		129	100.0

4.2 교재·교구 활용실태

4.2.1 유아와의 상호작용에서 교재·교구의 질 중요성

다음 Table 2는 유아와의 상호작용에서 교재·교구의 질 중요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Table 2] Importance for the quality of teaching materials and implements in interaction with children

Classification		Importance for the quality of teaching materials and implements		X ² (p)
		Yes	No	
Undertaking class	Two-year-old toddler teachers	32(97.0)	1(3.0)	6.348 (.096)
	Three-year-old toddler teachers	39(97.5)	1(2.5)	
	Four-year-old toddler teachers	32(100.0)	0(0)	
	Five-year-old toddler teachers	21(87.5)	3(12.5)	
Career	Under 3 years	30(96.8)	1(3.2)	2.800 (.424)
	3 to 5 years	50(98.0)	1(2.0)	
	6 to 10 years	27(96.4)	1(3.6)	
	Over 11 years	17(89.5)	2(10.5)	
Total		124(96.1)	5(3.9)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124명(96.1%)은 유아와의 상호작용에서 교재·교구의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5명(3.9%)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4.2.2 교육, 보육과정을 고려한 교재·교구사용 시 수량과 품질에 대한 고민정도

다음 Table 3은 교육, 보육과정을 고려한 교재·교구사용시 수량과 품질에 대한 고민정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자주 생각한다’ 71명(55.0%), ‘가끔 생각한다’ 58명(45.0%)으로 나타나 대다수 교사가 교육, 보육과정을 고려한 교재·교구사용시 수량과 품질에 대해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3] Worry about quantity and quality when using teaching materials and implements with early childhood curriculum

Classification		Worry		χ^2 (p)
		Occasionally	Frequently	
Undertaking class	Two-Year- old toddler teachers	15(45.5)	18(54.5)	.737 (.865)
	Three-year- old toddler teachers	16(40.0)	24(60.0)	
	Four-year- old toddler teachers	16(50.0)	16(50.0)	
	Five-year- old toddler teachers	11(45.8)	13(54.2)	
Career	Under 3 years	18(58.1)	13(41.9)	9.347* (.025)
	3 to 5 years	27(52.9)	24(47.1)	
	6 to 10 years	7(25.0)	21(75.0)	
	Over 11 years	6(31.6)	13(68.4)	
Total		58(45.0)	71(55.0)	

* $p<.05$

[Table 4] Most inconvenience during interaction between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teaching implement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field

Classification		Most inconvenience					χ^2 (p)
		Price	Distribution	Developmental appropriateness	Quality	Change of early childhood curriculum	
Undertaking class	Two-year-old toddler teachers	1(3.0)	3(9.1)	13(39.4)	7(21.2)	9(27.3)	12.166 (.432)
	Three-year-old toddler teachers	1(2.5)	3(7.5)	22(55.0)	7(17.5)	7(17.5)	
	Four-year-old toddler teachers	6(18.8)	1(3.1)	14(43.8)	6(18.8)	5(15.6)	
	Five-year-old toddler teachers	1(4.2)	2(8.3)	12(50.0)	5(20.8)	4(16.7)	
Career	Under 3 years	2(6.5)	1(3.2)	16(51.6)	5(16.1)	7(22.6)	10.888 (.539)
	3 to 5 years	3(5.9)	7(13.7)	19(37.3)	12(23.5)	10(19.6)	
	6 to 10 years	3(10.7)	1(3.6)	16(57.1)	5(17.9)	3(10.7)	
	Over 11 years	1(5.3)	0(0)	10(52.6)	3(15.8)	5(26.3)	
Total		9(7.0)	9(7.0)	61(47.3)	25(19.4)	25(19.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5$), 5년 이상의 경우 5년 미만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사가 교육, 보육과정을 고려한 교재·교구사용시 수량과 품질에 대해 자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3 현장에서 유아교사와 교구간의 상호작용 시 가장 불편한 점

다음 Table 4는 현장에서 유아교사와 교구간의 상호작용 시 가장 불편한 점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발달의 적합성’이 61명(47.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품질’ 25명(19.4%), ‘교육, 보육과정의 변화’ 25명(19.4%), ‘가격’ 9명(7.0%), ‘유통’ 9명(7.0%) 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발달의 적합성 부분에서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4.2.4 유아교사와 교구간의 상호작용 시 유아들에 대한 사용의 편리성

다음 Table 5는 유아교사와 교구간의 상호작용 시 유아들에 대한 사용의 편리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평균 3.54점으로 나타나 비교적 보통수준으로 유아교사와 교구간의 상호작용 시 유아에 대한 사용이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Table 5] Convenience of the use of teaching implements for children during interaction between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teaching implements

Classification		M	SD	F-value	p
Under-taking class	Two-year-old toddler teachers	3.70	.728	1.815	.148
	Three-year-old toddler teachers	3.38	.586		
	Four-year-old toddler teachers	3.63	.609		
	Five-year-old toddler teachers	3.50	.590		
Career	Under 3 years	3.74	.682	1.688	.173
	3 to 5 years	3.49	.612		
	6 to 10 years	3.39	.629		
	Over 11 years	3.58	.607		
Total		3.54	.637		

4.2.5 놀이와 교구의 상호작용 시 유아들의 교구 활용에 대한 생각

다음 Table 6은 놀이와 교구의 상호작용 시 유아들의 교구활용에 대한 생각을 분석한 결과이다.

[Table 6] Thought about children's use of teaching implements during interaction between play and teaching implements

Classification		M	SD	F-value	p
Under-taking class	Two-year-old toddler teachers	4.18 ^b	.584	3.950*	.010
	Three-year-old toddler teachers	3.78 ^a	.620		
	Four-year-old toddler teachers	3.91 ^{ab}	.689		
	Five-year-old toddler teachers	3.67 ^a	.565		
Career	Under 3 years	4.06 ^{bc}	.629	3.199*	.026
	3 to 5 years	3.78 ^{ab}	.642		
	6 to 10 years	3.71 ^a	.535		
	Over 11 years	4.16 ^c	.688		
Total		3.89	.640		

* p<.05 Duncan : a<b<c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평균 3.89점으로 나타나 비교적 놀이와 교구의 상호작용 시 유아들의 교구활용에 대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유아와의 관계, 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5), 만 2세 교사나, 11년 이상 경력의 교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놀이와 교구의 상호작용 시 유아들의 교구활용에 대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6 현재 유아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유아 교구에 대한 만족도

다음 Table 7은 현재 유아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유아교구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평균 3.29점으로 보통수준으로 현재 유아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유아 교구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Table 7] Satisfaction with current teaching implements for children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field

Classification		M	SD	F-value	p
Under-taking class	Two-year-old toddler teachers	3.36	.549	.646	.587
	Three-year-old toddler teachers	3.33	.572		
	Four-year-old toddler teachers	3.28	.457		
	Five-year-old toddler teachers	3.17	.637		
Career	Under 3 years	3.29	.461	.395	.757
	3 to 5 years	3.35	.559		
	6 to 10 years	3.25	.518		
	Over 11 years	3.21	.713		
Total		3.29	.551		

4.3 교재·교구에 대한 교사의 인식

다음 Table 8은 교재·교구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교재·교구에 대한 교사의 전반적인 인식은 평균 3.99점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교육 현장에서 교사와의 교구의 다양한 상호작용과 교육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재·교구의 사용을 늘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8] Teachers' perception of teaching materials and implements

Classification		M	SD	F-value	p
Under-taking class	Two-year-old toddler teachers	4.03	.482	.815	.488
	Three-year-old toddler teachers	3.90	.464		
	Four-year-old toddler teachers	4.07	.544		
	Five-year-old toddler teachers	3.96	.508		
Career	Under 3 years	4.04	.509	1.780	.154
	3 to 5 years	3.88	.539		
	6 to 10 years	4.00	.465		
	Over 11 years	4.18	.344		
Total		3.99	.496		

이 외에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5. 결론

이상의 본 연구에서 검증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재·교구 활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먼저 유아와의 상호작용에서 교재·교구의 질 중요성은 전체 96.1%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 보육과정을 고려한 교재·교구사용시 수량과 품질에 대한 고민정도에 있어서는 대다수 교사가 교육, 보육과정을 고려한 교재·교구사용시 수량과 품질에 대해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장에서 유아교사와 교구간의 상호작용 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는 발달의 적합성(47.3%)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유아교사와 교구간의 상호작용 시 유아들에 대한 사용의 편리성에 있어서는 전체 49.6%가 유아교사와 교구간의 상호작용 시 유아에 대한 사용이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놀이와 교구의 상호작용 시 유아들의 교구활용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는 전체 73.6%가 놀이와 교구의 상호작용 시 유아들의 교구활용에 대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유아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유아교구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전체 32.6%가 현재 유아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유아 교구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재·교구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평균 3.99점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교육 현장에서 교사와의 교구의 다양한 상호작용과 교육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재·교구의 사용을 늘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유아의 어린이집에서의 교재·교구활용에 따른 교재·교구의 질이 매우 중요시 되고 있음을 입증시켜 주었다. 특히 유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보조재로서 73.6%가 교구활용에 따른 교육에의 도움과 실익을 인식하고 있는데 비해 사용 결과에 따른 만족도는 32.6%로 나타내 교재·교구의 중요성과 유용성을 고려할 때 품질기준과 시설평가와 함께 교재·교구도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하여 품질이 보증된 제품의 공급으로 유아들의 안전과 사용에 따른 편의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의 도입이 요구됨을 시사해 주었다. 이는 교재·교구 활용에 대한 73.6%의 유익성을 볼 때 갈수록 창의성을 높이려는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에 따른 영아반 조기교육의 열풍 속에 가정어린이집이나 일반 어린이집 또한 교사에 의존한 지도보다 교재·교구

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 있는 현실에서 전체 32.6%만이 교재·교구 사용에 대한 낮은 만족율은 그만큼 품질규정에 대한 높은 인식과 활용에 비례한 제조사의 낮은 제품공급과 질 낮은 제품에 의존한 교재·교구 구매를 강구하는 원장들의 왜곡된 인식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품질기준에 대한 선진국과 같이 인증평가제도를 정규화시킴으로써 교사와 유아상호간 수준 높은 교재·교구의 공급과 활용에 따른 인식개선으로 유아교육 환경의 질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존 교재·교구의 평가인증제의 도입을 주장한 오민수[3], 강미옥[4], 이옥[17], 김동례[18], 박성진·이현옥[19]의 연구에서도 지적된 것으로 본 연구결과와 학제적·실무적 유용성을 입증해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유아교육기관 시설의 다양한 유형에 부합한 평가인증과 안전기준의 제도화로 기존 방지되고 있는 낮은 품질의 유아용 교재·교구의 공급측면에서 안전성 확보로 제품의 신뢰도를 높일 것이 요구된다. 또한 관련 안전기준에 대한 다양한 기대수준에 부합한 욕구충족을 위해 관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 기준정립을 위한 학제적 연구가 병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E. Y. Kim, J. K. Kim, K. S. Choi, W. J. Cho, H. J. Cho, and J. Ann, A Study on Developing Facility Standard of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09.
- [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valuation Authentication Guideline for Day-care Center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
- [3] M. S. Oh, A Study on the Awareness of Directors of Daycare Centers about Daycare Center Accreditation and Their Relevant Satisfaction Level. M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07.
- [4] M. O. Kang, The Recognition and Demands about a Assist for the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System of Gyeongnam Child-care Facilities. MS Thesis Gyeongnam University, 2008.
- [5] Y. M. Shim, Analysis on Educational Materials of Toddler Classes in Child Care Center. MS Thesis Kong Ju National University, 2012.
- [6] S. H. Jeong, A Study on the Developing Criteria of Teaching Materials and Implements for Children's Class

- in Child Care Center. MS Thesis Kong Ju National University, 2010.
- [7] J. S. Lee, Perception of Directors and Teachers about Child Care Center Accreditation System. Ph. D.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2010.
- [8] M. H. Kang, J. H. Ryu, A. H. Yoon, K. H. Lee, and J. O. Jung,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of Early Childhood Program, hakjisa, 2002.
- [9] Office of Day-care Center Evaluation Authentication, Source Book on The Second Promotion Plan Hearing for Evaluation Authentication of Day-care Centers. Office of Day-care Center Evaluation Authentication, 2009.
- [10] <http://www.naeyc.org/accreditation>
- [11] NAEYC, NAEYC Accreditation, 2006. <http://www.naeyc.org/accreditation>.
- [12] C. Howes, and E. Gailnsky. Accreditation of Johnson & Johnson Child Development Center. in S. Bredekamp, and B. A. Willer(EDs). NAEYC Accreditation: A Decade of Learning and Years Ahead. Washington, DC: NAEYC, 1996.
- [13] <http://www.ncac.gov.au>.
- [14] NAEYC, Signs of Quality in Early Childhood Programs, 2001. <http://www.naeyc.org/accreditaion>.
- [15] G. L. Zellman, A. S. Johansen, and J. Van Winkle. Examining Effects of Accreditation on Military Child Development Center Operations and Outcomes. Santa Monica, CA: Rand, 1994.
- [16] D. K. Lee, Plans for Establishing the Publicness and Responsibilit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Humanities Research, Vol.22, pp. 111-130, 2005.
- [17] O, Lee, Introduction and Implications of the evaluation Authentication System of Day-care Centers.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Vol.1, pp. 83-103, 2004.
- [18] D. R. Kim, A Study on the Operation Process and Post?]management of Accreditation System Perceived by Child Care Personnel. Ph. D.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07.
- [19] S. J. Park, and H. O. Lee, The Needs of Child Care Workers Concerning Accreditation Support.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Vol.2, No.1, pp. 59-78, 2007.

강 영 식(Young-Sik Kang)

[정회원]



- 2004년 2월 : 원광대학교 유아교육전공 (문학박사)
- 2006년 8월 : 원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공 (사회복지학박사)
- 2012년 1월 ~ 현재 :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육대학원 (유아교육 전공교수)

<관심분야>

유아교육, 부모교육, 아동복지

박 정 환(Jung-Hwan Park)

[정회원]



- 1992년 2월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 (문학사)
- 1994년 2월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 (문학석사)
- 2001년 2월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04년 9월 ~ 현재 :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교육공학, 유러닝(U-Learning), 포트폴리오 평가